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 11:14)



# 에덴뉴스

2017년  
통합 11-65호

7月

*Designed by 윤태경*

**02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3 행복 칼럼 2017**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4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7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NEWS 에덴의 소식



제 13회 문학의 밤

5월 24일, 직원과 환우 그리고 에덴을 거쳐 간 환우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축제의 한마당을 만든 제 13회 문학의 밤 행사를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환우 12명이 열정을 다해 준비한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1부 순서에는 직원과 환우들의 자작시 낭송이 있었고, 2부 순서는 애송시 낭송, 3부는 음악치료, 4부 공연 등 다양한 레파토리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김남혁 병원장은 역대 문학의 밤 행사 중 가장 성황리에 진행된 것 같이라며 준비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에버그린의 밤

에버그린센터(센터장 이경훈)에서는 지난 5월 27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베지랜드에서 제 1회 에버그린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에버그린센터 어르신들과 가족, 친척, 직원들과 가족 77명을 초대하여 저녁식사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순서를 진행하였다.

어르신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준 에버그린센터 직원들과 선물후원, 음식준비를 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에덴 정원 내 정자 설치

에덴요양병원은 주변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환우들의 투병생활에 활력을 더해주고 마음이 안정되도록 돕기 위해 일광욕장 개설, 병실입구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였고, 병원 후면의 연못 가꾸기 및 정자 설치 등 주변을 정비하는 일에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특별 건강 강의

미국 텍사스주 주립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로 일하는 이승현 박사와 하버드의대를 졸업하고 라우던 병원에서 방사선 종양학 진료부장으로 근무 중인 Jason H. Sun박사가 6월 18일 진행된 제 1회 한국재림교회 생활의학심포지엄 및 건강기별선교 행사에 참석 차 내한한 시간을 이용해 에덴요양병원을 방문하고 직원과 환우를 위해 건강강의를 진행했다.



디톡스 캠프

에덴요양병원과 진접뉴스타트교회(담임목사 권기용)가 연합하여 디톡스캠프를 에덴요양병원에서 진행했다. 총 25명의 참가자와 교회 봉사자들이 1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주 강사로 권기용목사가 건강기별과 복음을 선포했다.

직원동정

♥ 축하합니다 ♥

이혁재(진료지원) 6월 3일 득남



## 행복칼럼[2] 원목실장 류태희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어느 날 저녁 두 청년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클리블랜드라는 청년으로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고 돌아 다니며 무의미한 방랑의 삶이 계속 되었다. 그날도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바로 옆에 한 작은 교회가 눈에 띄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교회 입구 게시판에 적혀있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다. 그 설교 제목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었다. “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것을 읽은 클리블랜드는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우리 놀러 가는 거 내일 가고 오늘 밤은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다른 친구는 “너 미쳤나?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예배냐?” 하며 거절하였다.

결국 두 청년은 그 교회 앞에서 헤어져 각자 자기의 갈 길을 찾게 되었다. 한 청년은 처음 작정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클리블랜드는 친구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며 “그러면 너 혼자 가라! 나는 교회로 들어 가겠다.”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날 예배에 참여한 클리블랜드는 목사님께서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락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였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깊이 회개하고 그 날부터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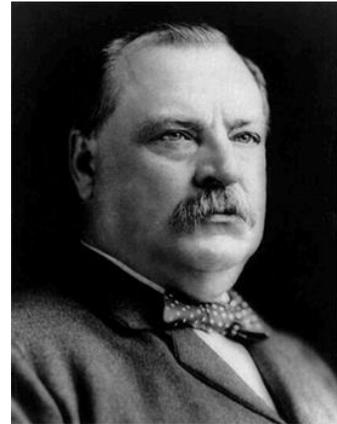
그 후에 클리블랜드는 정직하고 소신 있는 행동으로 1870년 뉴욕 주 이리 카운티의 군보안관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1884년 민주당 지지자들과 개혁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미국의 제 2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도박장으로 향했던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청년은 범죄와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 가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 감옥에서 큼직한 당선 사진과 함께 신문 호외뉴스를 읽게 되었다. 과거 한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는지 깨닫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며 30년 전 바로 그 저녁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부착되어 있었던 그 교회 벽의 간판을 기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편을 택한 클리블랜드는 취임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히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축복이 우리들의 노력 위에 임하도록 기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 클리블랜드의 선택



Stephen Grover Cleveland, 1837~1908

그는 대통령 재임 중 1886년 6월 2일에 프랜시스 폴섬과 백악관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는 재임 중 결혼한 두 번째 대통령이었으며, 백악관에서 결혼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1888년 재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백악관을 떠나면서 클리블랜드의 부인인 폴섬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가구와 장식들을 지금처럼 잘 보존해 두세요. 나중에 우린 다시 돌아올테니까요. 지금부터 4년 후에 대략 1460일 후에 우린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92년 관세 인하와 자유로운 은화 제조의 중단을 선거공약으로 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연속되는 임기가 아닌 임기를 건너뛰어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상품광고가 있듯이,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우리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끊임없이 놓이게 될 때, 젊은 시절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던 클리블랜드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이사야56:4)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신 30:19-20)

## STORY 치유스토리

## 불면의 밤에 만난 하나님

최경임(유방암)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솔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이제야 깨닫는다. 지금 멈추지 않고 여전히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쳤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나름 두 아이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그 직분과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행도 더 자주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보자 생각하는 찰나에 '암이 찾아왔다.' 그 심이 나를 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한 수많은 일과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을 더 못하는 삶에 대해 마음속에 원망도 많았다.

2016년 1월4일, 유방암 수술을 받고 8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혈관이 약해 남은 세 번의 항암을 하기 위해 영양제를 맞지 않고 버티며 밥 한 숟가락 먹고 벽에 기대고 또 한 숟가락 먹고 기대기를 반복하며 견뎌냈다. 항암 하는 동안 있었던 부친의 모 요양병원 다인실에서 홀로 밤마다 잠과 사투를 벌였다. 옆 사람의 숙면에 방해가 될까 싶어 그 좋아하는 음악도 못 듣고 눈만 감은 채 암 선고 받고 1년 전에 갔던 한라산의 멋지고 가슴 설레게 했던 눈꽃산행, 입을 다물지 못했던 설악산의 단풍, 남해의 소매물도 등을 떠 올리며 견디어 냈다.

죽을 것만 같았던 8일의 밤 끝에 온갖 수면제도 안 듣더니 정신의학과 안정제로 드디어 달콤한 네 시간의 단잠을 자고 깨어난 이른 새벽에 누웠던 침상과 덮고 잔 이불, 눈뜨고 살아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도 모르게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그 뒤로 2차 항암이 시작되며 심장문제로 가슴이 찢이고 통증이 오며 숨쉬기가 곤란해 응급실도 가고 심장내과에서는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 해서 심장조영술로 수술한 쪽의 오른쪽 동맥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는 등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경험하기도 했다.

큰 아들은 태어나 한 달 후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엄마를 많이도 애타게 했던 장애인이다. 이제 23살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 달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 했는데 이렇게 긴 심을 주셨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던 작년에는 작은 딸애가 고3이었다.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했는데 원하는 대학 희망학과에 들어가 야무지게 적응한다. 이곳 에덴에는 지난 3월 29일 작은아이 기숙사에 필요한 물건 등을 챙겨주고 도망치듯 나 좀 살자 하고 들어온 곳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불면의 밤은 더 깊어지고 온갖 안정제, 수면제, 멜라토닌, 수맥차단패드 등 무엇을 하여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심장 문제로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통증에 응급비상약과 사혈침 등으로 버텨 왔다.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불면의 밤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20년이 넘도록 큰아이 키우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암 투병을 하지 않고 2010년, 2011년 아들 딸 데리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7.1도, 6.3도, 6.1도의 강진 후에도 무사한 귀국이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심장 문제로 응급약을 머리맡에 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 이곳 에덴에서 인생의 고단한 삶을 잠시 멈추고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 STORY 치유스토리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새는 공하면 아무거나 쪼아먹게 되고,  
짐승은 공하면 사람을 헤치게 되며,  
사람은 공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 공자 -

조선조 후기 때 문필가이며 시인인 정수동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더운 여름날, 정수동은 서당에서 더위로 인해 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훈장이 불호령을 내리며 매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동은 훈장님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수동은 훈장님을 조용히 깨우며 물었습니다.

“훈장님! 훈장님은 왜 주무십니까?”

그러자 멧쩍은 훈장이 둘러댔습니다.

“나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먹어 자꾸만 잊어버려서 잊어버린 것을 물으러 잠시 공자님께 다녀왔다.  
그것이 너에겐 자는 것으로 보였느냐?”

정수동은 순간 훈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수동은 훈장님이 보는 앞에서 자는 척했습니다.

또다시 잠자는 모습을 본 훈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동이 이놈, 또 잠을 자는구나!”

훈장이 큰 소리에 정수동은 깨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저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을 뵈러 갔을 따름입니다.”

훈장은 내심 뜨끔해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공자님이 네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네. 공자님께 며칠 전 훈장님이 다녀가셨느냐고 물었더니 오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 FOOD 계절을 대표하는 건강 식품

### 밤[Cabbage]

중국 진나라 때 편찬된 《삼국지》의 〈마한〉편에는 "마한에는 굶기가 배만한 밤이 난다"고 적혀 있다. '배만한 밤'이란 표현이 중국인 특유의 허풍이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밤의 품종이 우수해서인지 밤을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하는 곳도 드물다.

서양에서는 빵과 케이크에 밤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과자 '마롱글라세 marrons glacés'다. 무려 열흘에 걸쳐서 밤을 설탕시럽에 졸여 만드는데, 세계 3대 명과에 속할 만큼 명성이 드높다. 옛말에 "밤 세 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했듯이, 밤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다. 9월 초순부터 10월께에 수확하는 햇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전식품이다. 밤 100g에 들어 있는 비타민 B1의 함량은 쌀의 4배나 되며, 인체의 성장발육을 촉진하는 비타민 D의 함유량도 많다.

한의학에서는 위장과 신장이 허약한 사람, 걸지 못하거나 식욕부진인 아이에게 밤을 회복식으로 처방했다. 지금도 민간요법에서는 소화기능이 약해 묽은 변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 찹쌀과 밤을 섞은 밤경단을 먹이는 방법이 전해지고 있다.



밤은 껍질이 두껍고 전분이 영양분을 둘러싸고 있어서 가열해도 영양 손실이 적으므로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 적합하다. 비타민 C의 함유량은 토마토와 맛먹을 만큼 풍부인데, 대보름날 생밤을 오도독 씹어 먹고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기원했던 풍습은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분과 비타민 C를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 생밤 10개를 먹으면 비타민 C 하루 필요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생밤은 피부미용, 피로회복, 감기예방 등에 효능이 있고, 밤의 당분에는 위장기능을 강화하는 효소가 들어 있으며, 성인병 예방과 신장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심할 때는 군밤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좋고, 신장이 약한 사람은 생밤을 장기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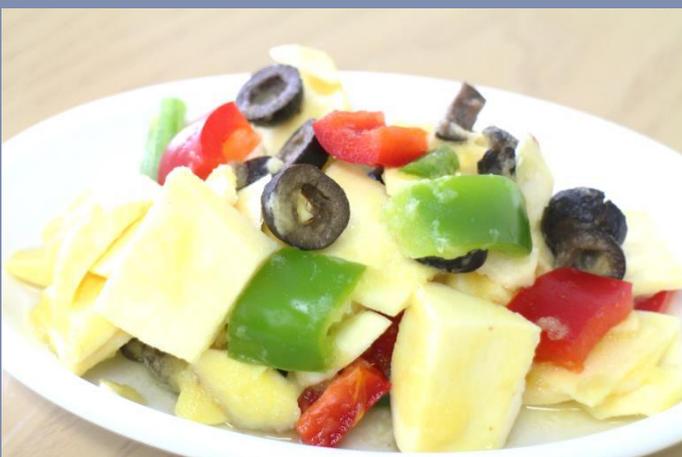
밤을 부드러운 속껍질까지 벗겨내면 노란색의 속살이 나오는데, 밤의 속살이 노란색을 띠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이다.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노화를 저지시켜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밤을 먹으면 젊어지고, 면역력을 높여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 감기도 예방한다. 밤은 생활 속에서 구급약 역할도 한다. 차멀미가 심할 때 생밤을 씹어 먹으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상처를 입거나, 피부병 및 벌레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생밤을 씹어서 상처에 붙이면 해독작용을 한다. 지혈성분과 함께 독소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밤을 말려서 약용으로 쓸 때에는 건율乾栗, 황률黃栗이라고 부르는데, 위장과 비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분만 아니라 황률에 두충을 함께 넣고 달여 먹으면 훌륭한 정력제가 된다. 하혈이나 토혈을 할 때는 밤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좋고, 배탈과 설사가 심할 경우에는 군밤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밖에 산모의 모유분비가 실통치 않거나,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을 경우에 밤을 꾸준히 먹으면 증상이 호전된다.

고운 피부를 갖고 싶은 여성들이라면 밤의 속껍질을 이용하라. 속껍질을 잘 말려서 곱게 가루를 낸 후에 꿀과 함께 섞어서 팩을 하듯 얼굴에 발라주면, 노폐물 및 각질을 제거해 피부가 고와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밤에는 전분이 많아서 열량이 생밤 100g당 162kcal에 이를 정도로 높으므로 군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밤으로 만든 에덴의 항암채식요리



#### 밤샐러드

레시피 보러가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FIGHTING! 파이팅 릴레이

병원장 김남혁

에덴 가족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 더운 날씨에 에덴 환우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우분들의 현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5년 전 제가 겪은 한 여름의 암 진단...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을 생각하니 마치 나의 고통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에덴에서의 좋은 치료의 음식,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등 좋은 환경, 좋은 직원들의 사랑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와 같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고 고통의 집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병원장으로서 최고의 바램은 우리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어 치유함을 받고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에덴의 모든 식구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덴 환우분들 화이팅~!!

※ 화이팅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김남혁 병원장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총무과 원영권 주임'입니다.

## 칭찬합시다 COMPLIMENT



송정욱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착하시고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십니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 장우혁

이영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웃는 얼굴과 밝은 표정, 다정다감한 말투. 땀을 흘리면서도 환우 기분까지 살피면서 얘기도 해주고, 잘 들어주고, 때론 울동으로 웃게 만들어 주신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마주치면 기분 좋아지는 선생님이로 변치 않았음 합니다. - 520호 김정아

최경숙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웃는 미소가 힐링이 됩니다. 친절한 말씨로 환자들을 대하니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가 됩니다. - 112호 노숙징



정재명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이 마주치면 활짝 웃으시는 그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게 미소 짓는 그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숙연한 마음마저 들 정도지요. 특히 안식일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잘 부르셔서 환우들 모두 행복을 느낍니다. - 301호 홍보경

문경애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문 치료사님은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 대하시는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저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109호 백철운



301호 이희경님을 칭찬합니다. 제가 처음 입원 시 잘 못 먹고 딸아이의 간병을 받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우연히 희경씨와 인사하고 난 후 직접 만든 맛갈스런 음식들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환우분들에게도 나눔을 향시 베풀어 타인의 귀감이 되고 칭찬받을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309호 홍경임

## 짧은시 한 편

눈물

미상

만일 내가 무엇인가로 돌아온다면  
눈물로 돌아오리라

너의 가슴에서 잉태되고  
너의 눈에서 태어나  
너의 뺨에서 살고  
너의 입술에서 죽고 싶다

눈물처럼



## 공모합니다

병원 후면에 구성되어 있는 정원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래 빈 란에 이름을 적어 홍보기획과에 응모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에덴의 직원 및 환우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후기

피드백에는 크게 양성피드백(+)과 음성피드백(-)이 있는데, 양성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경우이고 음성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경우입니다.

양성피드백의 경우 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 먹을수록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고 유선세포에 작용하여 모유가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음성피드백은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용해 그 결과를 줄이거나 늘리는 자동 조절 원리를 말하며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인체의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삶이 아닌 균형을 이룬 생활로 건강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에덴뉴스 편집장 행복돌쇠

에덴요양병원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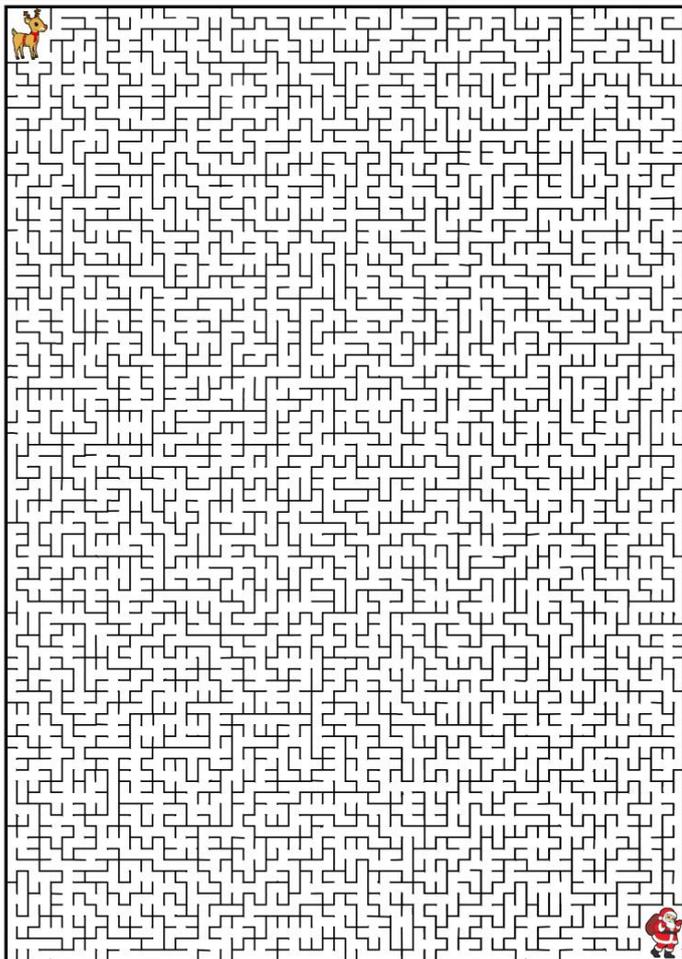
- 홈페이지 [www.edenah.com](http://www.edenah.com)
- 블로그 [blog.naver.com/edenah](http://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www.youtube.com/user/TVEdenah](http://www.youtube.com/user/TVEdena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enhospital](http://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twitter.com/Edenhospital](http://twitter.com/Edenhospital)

검색창

에덴요양병원 ▼

절취선

## 미로 찾기(연필로 하세요~)



이름 :

호실 :

호

♥ 미로찾기 정답, 칭찬의 글을 홍보기획과로 보내주시면 매월 각 1분씩 추첨하여 매점상품권을 드립니다.

♥ 접수마감일은 7월 25일이고, 미로찾기 정답과 칭찬의 글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 ♥ 지난 호 당첨자

- 숨은그림찾기 109호 백철윤, 112호 노숙징,

309호 홍경임

- 칭찬합시다 301호 홍보경, 520호 김정아, 장우현

♥ ( )님을 칭찬합니다.

- 칭찬사연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



---



---



---



---



---